



지난 1988년 개설된 구례군 천은사~성삼재~남원시 산내면에 이르는 24km에 달하는 성삼재 도로(지방도 861호). 연 평균 45만여대의 차량과 110만명의 탐방객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리산 생태계 및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난개발 막고 탐방객 만족도 높여라

국립공원 40년

<2부> 지리산의 오늘과 내일

7 풀어야 할 과제들

지리산 국립공원이 40주년을 맞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리산 난개발(亂開發)을 막으면서도 탐방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 등을 통해 탐방객 유인과 자연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죽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 등의 명목으로 남·동해안 특별법제정, 케이블카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와 환경단체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난개발(亂開發) 위기=국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남·동해안 발전특별법' 통합법안은 지리산을 난개발로 몰고 갈 가장 큰 위험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법안은 남동해안 연안 관광권 개발 사업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남동해안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까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발 계획 승인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고 돼 있지만, 실시 계획은 시·도자사 승

인만 받으면 사업시행과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국립공원 내에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 다음해인 1968년부터 1987년 7월까지 20년

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다. 이로 인해 동·식물의 멸종 위기 초래, 생태계 파괴 등이 이뤄졌다. 뒤늦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국립공원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환경 전문가들은 통합법안이 지리산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리산 관광개발계획,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 등도 지리산의 난개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지리산 일주도로 폐쇄 논란=지리산 생태계 및 환경훼손 주범으로 지정되고 있는 성삼재 도로(지방도 861호) 등 지리산 관통도로에 대한 폐쇄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성삼재 도로는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역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전남·북이 국제개

발부응은행 차관을 들여와 구례군 천은사~성삼재~남원시 산내면 24km에 개설한 도로로 1988년 준공했다. 이후 연간 평균 45만여 대의 차량과 110만명의 탐방객이 이 도로를 이용해 왔다.

그동안 지리산 생명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도),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지리산권 환경단체들은 성

난해 12월까지 지리산을 끼고 있는 88고속

도로 등 47개 도로에서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법정 보호증 311마리를 비롯한 모두 5천769마리의 애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 숨졌다. 이 중 유유류가 1천792마리로 가장 많았고 ▲양서류 1천604마리 ▲조류 1천329마리 ▲파충류 970마리 등 순이었다.

한해 평균 2천308마리의 애생동물이 지리

특별법 통합법안이 국립공원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개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은 개발 대상에서 제 배제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도 40년간 지속돼온 국립공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멸종위기종 57%가 사는 생물공간을 해칠 수 있다며 개발사업이 정부가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성삼재 도로 등 일주 도로 폐쇄 논란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단 측은 이달 성삼재 도로 개설 이후 환경파괴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성삼재 도로 이용 차량이 급증하면서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애생동물 피해를 더는 방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 측은 용역결과에 따라 성삼재 도로 폐쇄 여부와 함께 주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어찌 됐든 지리산은 자연보존과 함께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아 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뒤늦게 선진 국립공원의 면모를 찾아가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풀어야 가야 할 숙제다.

<제2부 끝>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동해안특별법 지리산 파괴 우려

케이블카·일주도로 논란 해결 시급

삼재 도로가 지리산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매년 '성삼재길 걷기 행사' 등을 통해 폐쇄를 요구해 왔다.

성삼재 도로뿐 아니라 지리산 전체를 두른 도로(320km)도 지리산 애생동물의 '로드킬(road-kill·차량 사고로 죽은 애생동물)'을 지정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종화 교수팀이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

산 일대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죽이다.

이 가운데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법정보호동물 16종 311마리로, 멸종위기종 103마리로 가장 많았고 소각새와 큰소각새(천연기념물)가 각각 102마리와 49마리였다.

◇과제 어떻게 푸나?=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단체들은 남·동해안발발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223-1140, 2210 원 011-682-2522

(부동산부동산부동산, 대인동 부동산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LCT아워(주)

☎ (02) 972-8004, 월 010-7154-6996

(광주부동산부동산)

첨단지구 LCT아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영마이커 운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병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 사인 종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고한 현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 (02) 242-0126 월 011-609-0996

(광주부동산부동산)

상가건물을 매매

• 1층과 2층과 3층과 4층과 5층과 6층과 7층과 8층과 9층과 10층과 11층과 12층과 13층과 14층과 15층과 16층과 17층과 18층과 19층과 20층과 21층과 22층과 23층과 24층과 25층과 26층과 27층과 28층과 29층과 30층과 31층과 32층과 33층과 34층과 35층과 36층과 37층과 38층과 39층과 40층과 41층과 42층과 43층과 44층과 45층과 46층과 47층과 48층과 49층과 50층과 51층과 52층과 53층과 54층과 55층과 56층과 57층과 58층과 59층과 60층과 61층과 62층과 63층과 64층과 65층과 66층과 67층과 68층과 69층과 70층과 71층과 72층과 73층과 74층과 75층과 76층과 77층과 78층과 79층과 80층과 81층과 82층과 83층과 84층과 85층과 86층과 87층과 88층과 89층과 90층과 91층과 92층과 93층과 94층과 95층과 96층과 97층과 98층과 99층과 100층과 101층과 102층과 103층과 104층과 105층과 106층과 107층과 108층과 109층과 110층과 111층과 112층과 113층과 114층과 115층과 116층과 117층과 118층과 119층과 120층과 121층과 122층과 123층과 124층과 125층과 126층과 127층과 128층과 129층과 130층과 131층과 132층과 133층과 134층과 135층과 136층과 137층과 138층과 139층과 140층과 141층과 142층과 143층과 144층과 145층과 146층과 147층과 148층과 149층과 150층과 151층과 152층과 153층과 154층과 155층과 156층과 157층과 158층과 159층과 160층과 161층과 162층과 163층과 164층과 165층과 166층과 167층과 168층과 169층과 170층과 171층과 172층과 173층과 174층과 175층과 176층과 177층과 178층과 179층과 180층과 181층과 182층과 183층과 184층과 185층과 186층과 187층과 188층과 189층과 190층과 191층과 192층과 193층과 194층과 195층과 196층과 197층과 198층과 199층과 200층과 201층과 202층과 203층과 204층과 205층과 206층과 207층과 208층과 209층과 210층과 211층과 212층과 213층과 214층과 215층과 216층과 217층과 218층과 219층과 220층과 221층과 222층과 223층과 224층과 225층과 226층과 227층과 228층과 229층과 230층과 231층과 232층과 233층과 234층과 235층과 236층과 237층과 238층과 239층과 240층과 241층과 242층과 243층과 244층과 245층과 246층과 247층과 248층과 249층과 250층과 251층과 252층과 253층과 254층과 255층과 256층과 257층과 258층과 259층과 260층과 261층과 262층과 263층과 264층과 265층과 266층과 267층과 268층과 269층과 270층과 271층과 272층과 273층과 274층과 275층과 276층과 277층과 278층과 279층과 280층과 281층과 282층과 283층과 284층과 285층과 286층과 287층과 288층과 289층과 290층과 291층과 292층과 293층과 294층과 295층과 296층과 297층과 298층과 299층과 300층과 301층과 302층과 303층과 304층과 305층과 306층과 307층과 308층과 309층과 310층과 311층과 312층과 313층과 314층과 315층과 316층과 317층과 318층과 319층과 320층과 321층과 322층과 323층과 324층과 325층과 326층과 327층과 328층과 329층과 330층과 331층과 332층과 333층과 334층과 335층과 336층과 337층과 338층과 339층과 340층과 341층과 342층과 343층과 344층과 345층과 346층과 347층과 348층과 349층과 350층과 351층과 352층과 353층과 354층과 355층과 356층과 357층과 358층과 359층과 360층과 361층과 362층과 363층과 364층과 365층과 366층과 367층과 368층과 369층과 370층과 371층과 372층과 373층과 374층과 375층과 376층과 377층과 378층과 379층과 380층과 381층과 382층과 383층과 384층과 385층과 386층과 387층과 388층과 389층과 390층과 391층과 392층과 393층과 394층과 395층과 396층과 397층과 398층과 399층과 400층과 401층과 402층과 403층과 404층과 405층과 406층과 407층과 408층과 409층과 410층과 411층과 412층과 413층과 414층과 415층과 416층과 417층과 418층과 419층과 420층과 421층과 422층과 423층과 424층과 425층과 426층과 427층과 428층과 429층과 430층과 431층과 432층과 433층과 434층과 435층과 436층과 437층과 438층과 439층과 440층과 441층과 442층과 443층과 444층과 445층과 446층과 447층과 448층과 449층과 450층과 451층과 452층과 453층과 454층과 455층과 456층과 457층과 458층과 459층과 460층과 461층과 462층과 463층과 464층과 465층과 466층과 467층과 468층과 469층과 470층과 471층과 472층과 473층과 474층과 475층과 476층과 477층과 478층과 479층과 480층과 481층과 482층과 483층과 484층과 485층과 486층과 487층과 488층과 489층과 490층과 491층